

Contents

권두언	1
논문발표회 및 학술대회 소식	2
전임회장단 모임	3
하반기 소식	3
회원동정	3
학회지 발간	4
신간소개	4
공지사항	8
회비납부	8

발행일 2019. 6. 30

발행처 한국러시아문학회

발행인 서상범

권두언

한국러시아문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부쳐

한국러시아문학회와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 학술대회가 지난 5월 18일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문학과 어학, 문화와 지역학에 걸쳐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되고, 열 한 분의 역대 학회장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학회원들이 참석해주신 덕분에 풍성한 학문적 소통과 만남의 장을 이룰 수 있었다.



윤영순 (경북대)

페레스트로이카의 바람을 타고 소련이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던 1980년대 후반, 한국러시아문학회 창립과 더불어 전국 여러 대학에서 러시아 관련 학과들이 설립된 것은 어찌 보면 시대적 요구에 대한 당연한 응답이라 할 수 있다. 그 나라의 언어와 문학을 공부하면서도 가 볼 수조차 없었던 소련은 마침내 갈 수 있는 곳이 되었고, 해방 이후 반세기 가까이 지속되던 학문적 막막함을 해소하기 위해 젊은 연구자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거 러시아로 유학을 떠나기도 했다. 도대체 어디서 한국 연구자들의 ‘물결’이 갑자기 나타났는지 러시아 학자들은 의아해했다. 당시 모스크바 대학의 어느 교수님은 이들을 한국의 ‘90년대 세대 девяностники’라고 농담처럼 부르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한국이 러시아라는 나라의 존재를 인식한 이후 러시아와 그 문학은 다른 어떤 나라나 문학보다 우리에게 가깝게 여겨졌다. 러시아 국경을 넘나드는 이광수 소설 속 주인공들이나, 심지어 러시아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이효석의 작품들은 당시 우리 문인들이 러시아를 가까운 이웃으로 인지했음을 보여준다. 지리적 조건으로 봐도 이는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현상이었다. 하지만 분단 이후 소련은 박제된 과거의 모습으로, 아니면 적국이라는 이념적 낙인이 찍힌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인지되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끝자락에서 섬 아닌 섬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창립 이후 한국러시아문학회가 걸어온 길은 긴 이데올로기 대립 시기 동안 생겨났던 이러한 거리감을 좁히고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표상을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동시대 주목받던 작가와 작품을 소개, 번역하고 러시아문학과 비평계의 다양한 이슈들을 조망했던 초기의 학술지 『러시아·소비에트 문학 Rusistika』은 학회의 이와 같은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후 학회는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해, 학교는 교육을 통해 러시아를 가까이 알아갈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다해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러시아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섬이 아님을 인식하게 해주는 중요한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러시아문학과 문화의 보다 폭넓은 대중화라는 과제일 것이다. 아카데미의 경계를 넘어서 러시아문학의 대중화와 러시아학의 지평을 넓히려는 시도를 최근 한국러시아문학회가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 『나를 움직인 이 한 장면- 러시아문학에서 청춘을 단련하다』, 『예술이 꿈꾼 러시아혁명』 등의 기획이 그러하며, 30주년을 기념하는 대중서 『러시아 문학과 웃음』의

발간 기획이 그러하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격동기에 태어난 한국러시아문학회는 30년이라는 온전한 한 세대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 러는 사이 ‘90년대 세대’는 아버지 세대가 되었다. 이제 앞으로 다가 올 새로운 30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버지 세대가 된 ‘90년대 세

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직 온전히 전망할 수 없지만, 다음 세대는 분명 과거보다 더 발전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러시아문학회가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논문발표회/학술대회 소식

▶5월 18일에 한국러시아문학회 학회창립30주년기념학술대회가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과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와 함께 공동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본 학술대회에는 전명선, 조주관, 최선, 정명자, 문석우, 이대우, 최성호, 백용식, 이강은, 이규환 등 한국러시아문학회의 전임 회장님들을 비롯하여 80여분의 학회원님들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문학, 문화, 어학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총 열두 편의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문학분과에서는 <18세기 러시아문학의 웃음>(서광진), <이반 부닌의 ‘어두운 가로수길’에 나타난 사랑과 죽음의 테마연구>(이상철), <‘가벼운 삶, 무거운 의미’: 빅토리아 토카레바 산문의 예술적 특징>(차지원), <18세기 러시아 여성잡지의 등장과 여성독자의 탄생>(강수경), <고골의 희곡 ‘감찰관’의 네 가지 무대적 변용>(이승역) 등의 발표가 있었으며 문화분과에서는 <레지오페라시대의 ‘루슬란과 류드밀라’: 텍스트

와 콘텍스트 해석의 문제를 중심으로>(박선영), <러시아 투바공화국의 성씨 Ондар와 온달에 관한 연구>(박종관)가 발표되었습니다. 어학분과에서는 <한러 언어 비교: 음성음운론과 형태음운론 층위>(최성호), <아르싸흐 공화국의 언어상황 연구>(정경택), <러시아 역사 속 투르크 민족명>(길윤미), <В.Токарева소설 ‘파랑새птица счастья’에 나타난 행복의 개념 고찰>(백경희), <소설 서술의 한 형식: 약력의 내러티브 구성>(이기웅), <Дискурс лидеров стран-участниц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в свете теории критического дискурс-анализа>(김나영), <Обуче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лингвокультурологической компетенции>(올가 흐라브로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된 본 학술대회는 지난해 실시된 학회원 대상 학회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학술대회 개최 장소의 다양화 요구의 일환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임회장단 모임

▶ 4월 13일(토)에는 명가의 뜰(서울역)에서 한국러시아문학회 전임 회장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올해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전임 회장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진행된 이 모임에는 최선(2000-2001), 정명자(2001-2001), 문석우(2002-2003), 조주관(1998-1999), 백용식(2012-2013), 이규환((2016-2017), 서상범 회장님(2018-현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날 전임 회장님들께서는 한국러시아문학회 30주년을 맞이하여 학회 발전을 위한 값진 의견을 나누어주셨습니다. 회장님들께서는 경북대학교와 함께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하는 것에 대한 안건을 제안해주셨

고 이 행사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사 참여를 약속해주셨습니다. 또한 올해 가을 우리 학회가 주관하는 제 9차 러시아학 관련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표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학회 재정 활성화를 위해 ‘평생회비 다시내기운동’에 동참해 주시는 등 개별적 차원의 재정 지원 역시도 약속해주셨습니다. 학회를 향한 전임 회장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국러시아문학회는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하반기 소식

▶ 10월 12일(토)에 러시아학 관련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가 한국러시아문학회 주관으로 고려대학교 한스퀘어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현대 러시아학의 제 문제: 공시성과 통시성>이라는 주제 아래 문학과 문화-통번역 및 어학과 사회과학 관련 다양한 주제의 발표들이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올해에도 학문후속세대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한 특별세션이 분과별로 마련되어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미래의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 러시아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한국러시아문학회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만큼 우리 학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12월 7일(예정)에는 제 86차 정례학술발표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원동정

▶ 서광진 회원이 2019년 3월부터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신입 교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서광진 회원은 러시아 문학사(18세기)를 전공하였으며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역서로는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의 여행』이

있으며 공저로는 『18세기 도시: 교류의 시작과 장소의 역사』, 『나를 움직인 한 장면: 러시아 문학에서 청춘을 단련하다』 등이 있습니다.

학회지 발간

▶ 2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64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제64집에는 문학, 어학, 문화 분야의 논문 8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학 분야에는 이재정 회원(계명대)의 [블리치카에 나타난 인간과 숲의 정령간의 커뮤니케이션 형성 전략]이, 어학 분야에는 김하은 회원(경북대)의 [О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о-русскому медицинскому письменному переводу]이, 문화 분야에는 강철 회원(연세대)의 [에이젠슈테인 영화에 나타난 문제-공간의 연출 방법론 연구]와 5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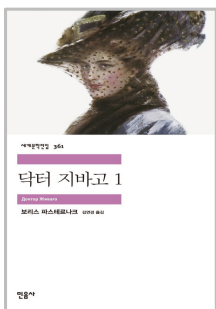
▶ 5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65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제65집에는 문학, 어학, 문화/지역학 분야의 논문 8편이 수

록되어 있습니다. 문학 분야에는 박미정 회원(경북대)의 [호모 노마드로서 고골의 삶과 열망-단편 「로마」를 중심으로-] 외 4편이, 어학 분야에는 백경희 회원(경북대)의 [Язык молодёжи как языковая субкультура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на примере прозы И. Денежкиной)]이, 문화/지역학 분야에는 권기배 회원(중앙대)의 [러시아 캐릭터 산업 현황과 과제]의 1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2019년 8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66집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신간소개

(2018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출간된 책을 인터넷 교보문고 및 출판사 제공 서평과 함께 올립니다.)



1. 『닥터 지바고 1, 2』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지음, 김연경 옮김, 민음사, 2019년 1월 25일 출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가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으로 출간되었다. 이 작품은 20세기 초 러시아의 격변하는 정치 상황을 통해, 당대 지식인의 고뇌와 혁명을 겪으며 어른이 된 ‘소년 소녀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1958년 파스테르나크는 “동시대의 서정시와 러시아 서사문학의 위대한 전통을 계승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지만, 정치적인 위협에 시달리자 수상을 포기했다. 그러나 바로 전년 수상자인 알베르 카뮈가 『닥터 지바고』를 두고 “사랑의 책”이라고 말한 것은, 이 소설이 정치적 해석을 넘어 인류 보

편의 가치에 가닿는 이야기임을 시사한다. 이를 증명하듯 데이비드 린 감독에 의해 각색된 동명의 영화가 전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하는 등, 오늘날에도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재해석되는 명작의 반열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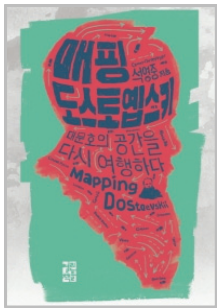


2. 『톨스토이 명작 단편선』 (톨스토이 지음, 백준현 옮김, 작가와비평, 2019년 2월 28일 출간)

톨스토이는 1880년경 자신의 문학관을 전면 수정한 이후 삶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문학가이자 사상가로서 전 세계에 명성을 드높였다. 그러나 창작 초기부터 사망 시까지

그의 문학이 변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그의 마음속 한쪽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삶과 죽음 자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에 대한 원초적인 고민이었다. 죽음이라는 무서운 파괴적 힘 앞에서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어 가는가를 올바르게 이해해야지만 그것에 따라 삶의 정당한 도덕적 기준이 제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번역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네 개의 중단편을 선정했다. 이 작품들은 톨스토이적인 삶과 죽음의 주제를 다양한 측면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그 예술적 가치 또한 높은 수작들이다. 이 작품들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톨스토이가 도덕과 윤리라는 기준에 앞서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에 대해 얼마나 소박하고도 진지하게 고민했는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3. 『매핑 도스토옙스키』 (석영중 지음, 열린책들, 2019년 3월 15일 출간)

노문학자 석영중 교수의 저서 『매핑 도스토옙스키: 대문호의 공간을 다시 여행하다』가 열린책들에서 출간되었다.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에서 오랜 세월 학생들에게 도스토옙스키의 문학을 가르쳐 온 저자는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세계 곳곳에 남긴 흔적들을 두 발로 직접 탐방했던 경험을 토대로, 그의 삶과 문학 세계를 독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소개하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베리아, 유럽 곳곳의 도시들에 이르기까지, 대문호가 실제로 머물렀던 지역과 장소들을 직접 보고 거닐면서 그의 정신적인 궤적을 따라가는 이 책은, 전문 연구자의 생생한 <도스토옙스키 기행>의 기록이자 그의 문학 세계로 흥미롭게 독자들을 초대하는 충실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석영중 교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 곳곳에 남아 있는 도스토옙스키의 흔적을 찾아서 러시아는 물론 카자흐스탄과 체코, 프랑스, 독일,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등지를 아홉 차례 오가는 대장정에 올랐다.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아마 지구를 몇 바퀴 돌았을 것>이라는 저자의 솔회만큼, 이처럼 한 연구자가 그의

흔적이 남아 있는 장소들을 전부 직접 찾아가 본 일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본 책에는 여행지에서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들과 이미지 자료들, 도스토옙스키의 주요 이동 경로를 나타낸 지도 등을 함께 수록하여, 이 책을 통해 떠나는 <도스토옙스키 여행>에 독자들이 더욱 생생하게 빠져들 수 있도록 했다. 이중에는 전문가들도 쉽게 찾아가서 보기 힘든 희귀한 사진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도스토옙스키의 삶과 작품에 각인된 공간들을 저자와 함께 더듬는 여정은, 단순히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공간을 다시 여행하며> 그가 보고 듣고 숨 쉬던 삶의 순간들 속으로 흠뻑 젖어 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4. 『행복한 모스크바』 (안드레이 플라토노프 지음, 송정수 옮김, 지식출판, 2019년 2월 7일 출간)

안드레이 플라토노프 탄생 120주년이 되는 2019년, 그의 작품 『행복한 모스크바』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플라토노프의 평탄치 않은 운명처럼, 이 작품도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그러나 그의 삶과 창작은 살아 숨 쉬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평범한 진리를 일깨운다. 인간은 언제나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진리. 『행복한 모스크바』는 그 자유와 본능의 세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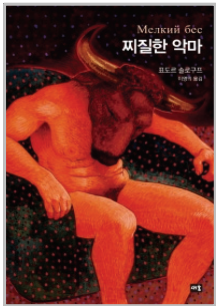


5.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 (윤새라 지음, 한양대학교출판부, 2019년 2월 25일 출간)

필자는 기존연구에서 규명한 차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두 대가를 바라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두 문호가 작품을 통해 마주치고(즉 나폴레옹, 사랑과 죽음, 법과 정의, 형제 등 같은 주제와 모티프를 다루지만) 또 엇갈린다는 사실을 장편소설들을 시대순으로 한 쌍씩 짝지어 살펴본다. 다시 말해 두

작가가 일견 무척 달라 보이지만 동시대를 함께 호흡하며 같은 문제를 두고 공명했으니 다른 시각으로 풀어냈음을 고찰한다. 그 결과, 한 작가의 시작이 곧 상대방의 끝에 상응함이 발견된다.

도스토옙스키의 경우 1년 정도의 응축된 시간 안에 벌어지는 한 개인의 고뇌와 부활에 집중한 『죄와 벌』에서 시작해 주인공을 다원화하고 50여 년 전 과거로까지 시간 폭을 넓힌 『카라마조프 형제들』로 작품세계를 확장해갔다면, 톨스토이는 반대로 『전쟁과 평화』라는 경이로운 역사소설로 시작해 당대를 무대로 한 『안나 카레니나』를 거치며 좁아져 가더니 마지막 장편에서는 『죄와 벌』처럼 한 남자에게 집중하고 그가 시베리아에서 부활하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는다. 이 책은 시간간의 활용 및 주인공의 특징, 또 주제를 펼치는 방식 등에서 두 대가의 장편이 서로 반대되는 궤도를 따라 진화한다는 점을 논증한다. 이 과정에서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의 천재성이 가장 잘 발휘된 장편들의 주요 특성이 서로의 거울에 비추어 조명됨으로써 새로운 분석과 독서가 시도될 것이다.



6. 『찌질한 악마』 (표도르 솔로구프 지음, 이영의 옮김, 새움, 2019년 2월 27일 출간)

악의적인, 그러나 어리석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섬세한 필치로 그려낸 작품 『찌질한 악마』는 러시아 제1세대 상징주의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인이자 작가로 꼽히는 표도르 솔로구프의 대표작이다.

문학비평가 드미트리 미르스키(1890~1937)는 이 작품을 두고 “도스토옙스키가 사망한 이래 가장 완벽한 러시아 소설”이라고 평했다. 『찌질한 악마』는 출간되자마자 러시아 전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솔로구프가 러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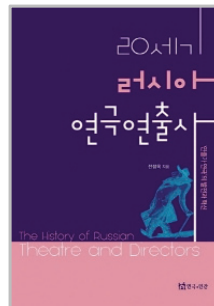
이번 번역은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고리키 세계문학연구소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모스크바 교육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반 테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대위의 딸』, 『암 병동』 등을 옮긴 역자 이영의가 맡아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가독성

이 높은 문장을 선보인다. 작품 속에 언급되는 러시아 문화, 문학, 문인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한 설명을 붙였으며, 작가 솔로구프를 더욱 깊숙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해설을 <작가와 의 대화> 형식으로 수록했다



7. 『아자젤』 (보리스 아쿠닌 지음, 이향재 옮김, 아작, 2019년 5월 30일 출간)

1876년 모스크바. 한 청년이 화장한 봄날의 공원에서 자살한다. 막 스무 살이 된 러시아의 하급 관리 에라스트 판도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살자가 매력적인 젊은 여인에게 빠져 친구와 목숨을 건 내기를 했음을 알게 된다. 사건의 배후가 풀리는 것 같은 순간, 정체불명의 사나이가 그를 공격해 오고, 자객은 짧게 한마디를 중얼거리다. “아자젤.” 과연 판도린은 ‘아자젤’의 비밀을 밝히고, 그들의 음모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8. 『20세기 러시아 연극연출사』 (전정욱 지음, 연극과인간, 2018년 12월 31일 출간)

이 책 『20세기 러시아 연극연출사』는 지난 2013년에 출간한 저자의 책 『현대 러시아 연극연출가론』의 후속 연구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러시아연극의 생성과 발전, 그리고 그것의 성찰과 반성, 희열의 순간을 역사적으로 짚으면서 러시아 연극사 일백 년을 특별한 방식으로 품고자 하였다. 1898년 모스크바예술대중극장을 설립하며 러시아 근현대연극사의 출발선에 섰던 연극연출가 콘스탄틴 스타니슬랍스키를 시작으로, 1970년대 스승들이 일궈낸 모스크바예술극장의 부흥기를 재현한 연극연출가 올렉 예프레모프까지, 러시아 연극사의 중심지형을 차지하는 연출가들의 연출방법론을 통해서이다.

저자의 『현대 러시아 연극연출가론』이 스탈린 사후, 동시대 러시아연극을 대표하는 연출가 18인의 연출 방법론을 통해 그것이 품고 있는 시대적 맥락과 새로운 미학적 실험의 양상을 러시아 연극사의 자장에서 읽었다면, 이 책 『20세기 러시아 연극 연출사』에는 이들의 예술적, 철학적 스승들의 무대적 혁신과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다.



9. 『붉은 칼』 (정보라 지음, 아작, 2019년 1월 22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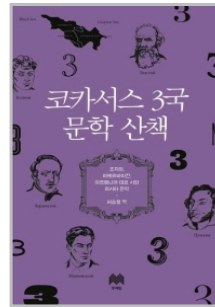
러시아를 비롯 슬라브어 권의 명작들을 꾸준히 번역해서 소개하고, 보태어 수준 높은 호러 SF/판타지 창작으로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 온 정보라 작가의 여섯 번째 저서이자, 세 번째 장편소설이 7년 만에 나왔다. 작가는, 17세기 청나라의 총알받이에 동원되었으나 기적적으로 러시아군을 물리치고 돌아온 나선정벌을 모티브로 하고, 그 세계를 우주로 확장해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전쟁 이야기를 엮어냈다.



10. 『러시아는 어디로 가는가?』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시사칼럼집 10, 강덕수, 김선래, 최우익 지음, 한울, 2019년 4월 5일 출간)

1년에 한 번 발간되는 시사칼럼집으로, 2018년 러시아가 당면했던 대내외 상황을 점검하고 2019년 러

아가 나아갈 방향을 검토한다. 1장에서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러시아 각 분야의 2018년 상황을 평가하고 2019년을 전망한다. 특히 집권 4기를 맞은 푸틴 정권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다. 2장에서는 러시아와 각국의 관계를 살펴보고 국제사회에서의 러시아의 역할을 검토한다. 또한 2018년 급진전한 남북 관계가 한·러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분석한다. 3장에서는 러시아 사회를 들여다보고, 러시아의 다양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4장에서는 오늘날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 가운데 의미 있는 이슈를 다룬다. 특히 부록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인 푸틴의 인간적·정치적 면모를 살펴본다.



11. 『코카서스 3국 문학 산책』 (허승철 지음, 문예리움, 2018년 12월 28일 출간)

한 나라의 문화를 깊이 경험하는 여행을 위해서는, 첫 단계로 그 나라의 문학을 알고 떠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책은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의 대표 시를 한 책에 담고, 19세기 초부터 약 200년 간 남코카서스를 지배했던 러시아 작가들 눈에 비친 코카서스 3국의 풍경과 정서가 담긴 문학을 소개하는 데 있다. 코카서스 지역은 러시아 작가와 지식인들에게는 빼어난 풍광과 이국적 정서가 가득 찬 이상향이자 피난처 같은 곳이기도 했다. 푸쉬킨을 비롯하여 레르문토프, 톨스토이, 벨리, 예세닌, 마야콥스키, 파스테르나크, 솔제니친 등 러시아의 주요 작가들 작품에는 코카서스(카프카스)에 대한 묘사가 있다. 이 책을 통해 코카서스 3국의 문학과 코카서스에 러시아 문학을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공지사항

▶ 『러시아어문학논집』 제66집 투고 안내

2019년 8월 25일 발간예정인 『러시아어문학논집』 제66집의 제출 마감일은 2019년 7월 15일입니다. 발간 후 회비를 납부한 회원님들께 발송될 예정입니다.

▶ 논문 투고 규정

- 가.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온라인 사이트 잼스(<https://russian.jams.or.kr>)를 통해 논문을 제출한다.
- 나. 투고 논문은 한국어, 러시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한다.
- 다. 모든 논문은 ‘아래아한글 2004’ 이상으로 작성하되, 지정된 편집용지 기준 20장 내외를 원칙으로 하며, 26장부터는 장 당 1만원의 초과 게재료를 지불한다.
- 라. 모든 원고에는 편집용지 기준 1장 내외의 외국어(본문과 다른 언어) 초록과 8개 단어 내외의 한글 및 영문 주제어(Keyword)를 첨부한다.
- 마. 원고 작성의 세부사항은 ‘논문작성 요령’을 따른다.
- 바. 본 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반드시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사. 공동집필 논문의 경우 제 1저자(연결 저자 포함)와 공동저자를 구분한다.
- 아. 특별 청탁 논문을 제외한 모든 논문의 필자는 본 학회 회원이

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자는 논문 투고 시 심사료(6만원)를 지불하며, 논문이 채택된 경우는 게재료를 납부한다(전임: 20만원, 전임 연구비수혜논문: 35만원, 비전임 5만원, 비전임 연구비수혜논문: 25만원). 심사료 및 게재료는 차후 조정될 수 있다.

자. 타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이거나 이미 게재가 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차. 본인 및 타인의 연구물을 표절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카. 본 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의 저자는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는 동시에 저작권에 대해 학회의 이용을 허락한다.

* 계좌번호: 농협 302-3720-9266-81, 예금주: 이기주

▶ <평생 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

존경하는 학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의 지속가능성을 공고히 하고 학회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전임회장님들께서 솔선하여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셨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에 제시된 회비 납부 현황을 참조해주시시오.

회비 납부 현황

▶ 회비 납부 현황

2019년 6월 15일 현재 학회비 납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내주신 학회비는 엄격하고 꼼꼼하게 관리되어 학회 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혹시 회비 납부를 하였으나 아래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karusist@naver.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 2019년 상반기 특별회비 출연해 주신 회원님

최 선 전 회장	1,000,000 원
문석우 전 회장	1,000,000 원
이대우 전 회장	1,000,000 원
석영중 전 회장	1,000,000 원

▲ 2009년~2018년 특별회비를 출연해 주신 회원님

조주관 전 회장	2,000,000 원 (2018)
이규환 전 회장	2,000,000 원 (2017)
조주관 전 회장	2,000,000 원 (2017)
정명자 전 회장	1,000,000 원 (2017)
문석우 전 회장	1,000,000 원 (2017)
최 선 전 회장	3,000,000 원 (2016)
이강은 전 회장	2,000,000 원 (2015)
조주관 전 회장	2,000,000 원 (2015)
경북대 토대사업팀(연구책임자 김정일)	500,000 원 (2015)
전명선 전 회장	1,000,000 원 (2014)
백용식 전 회장	1,000,000 원 (2014)
변현태 전 부회장	1,000,000 원 (2014)
김정일 부회장	1,000,000 원 (2014)
조주관 전 회장	500,000 원 (2013)
백용식 전 회장	1,000,000 원 (2012)
석영중 전 회장	1,000,000 원 (2011)
열린책들	2,900,000 원 (2010)
최성호 전 회장	1,000,000 원 (2009)

▲ 2019년 상반기 평생회비 한 번 더 내주신 회원님

문석우 전 회장	500,000 원
백용식 전 회장	500,000 원
정경택 교수	500,000 원

▲ 2017년~2018년 평생회비 한 번 더 내주신 회원님

심성보(50만 원), 윤영순(50만 원), 이명현(30만 원),

이항재(50만 원), 서상범(50만 원), 최진희(30만 원)

김진규(50만 원) (이상 7인)

* 평생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평생회비 완납(1997년~2019년 6월 15일 현재)

고영랑, 권경준, 김경태, 김규중, 김선명, 김선안, 김세일, 김용화, 김정아, 김정일, 김진규, 김진영, 김철균, 김홍중, 김혜란, 김희숙, 문석우, 박선영, 박재만, 박종소, 박현섭, 박현아, 박형규, 박혜경, 박혜옥, 백경희, 백승무, 백용식, 백준현, 변현태, 서상범, 석영중, 송인필, 심민자, 심성보, 심지은, 안병용, 안병팔, 안혁, 오원교, 오종우, 유승만, 윤영순, 이강은, 이규환, 이기웅, 이기주, 이남경, 이대우, 이득재, 이명현, 이영의, 이장욱, 이재혁, 이준형, 이지연, 이항재, 이현숙, 이형숙, 전명선, 전병국, 전정옥, 전지용, 정명자, 정보라, 조규연, 조미경, 조유선, 조주관, 조혜경, 차지원, 천호강, 최건영, 최병근, 최선, 최성호, 최정현, 최종술, 최진석, 최진희, 한예경, 허승철, 허효영, 홍대화, 홍순미, 홍지인 (이상 84인)

▲ 평생회비 부분납(2019년 6월 15일 현재)

강수경, 김민아, 민경현, 서선정, 윤새라, 이수현(이상 10만 원), 김태욱, 정영주, 홍택규(이상 15만 원), 안지영(20만 원), 김상현(25만 원) (이상 11인)

▲ 연회비 납부(2019년 6월 15일 현재)

박미정, 신혜조, 강철 (이상 3인)

▶ 2019년도 회비 납부 안내

2019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및 준회원의 입회비는 2만원이며, 정회원의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준회원의 경우 박사 학위 취득 시까지 연회비 면제). 평생회비는 3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전임교원 연회비: 5만원

▲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 전임교원 평생회비: 50만원

▲ 비전임교원 평생회비: 30만원

* 입금하실 때에는 반드시 성함과 입금 내역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연회비, 홍길동평생회비)

한 국 러 시 아 문 학 회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02856 서울시 성북구 인촌로 108 고려대학교 청산MK문화관 503호 러시아CIS연구소 내 한국러시아문학회 총무국
TEL: 02) 3290-1641 학회 홈페이지: www.russian.or.kr